KF-21 하반기 인도 임박… 중동·동남아 '수출 레이더' 확대

사우디 공군, 사천서 기동시범 참관
개발·전력화 일정, NACS 로드맵 공유
UAE MOU이후 KF-21 협력 가능성
필리핀 요청설·말레이 협의 착수
하반기 인도·9월 전력화, 시험 순항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모형. /KAI

KF-21이 체계개발 완료를 앞두고 하반기 양산기 인도와 초도 전력화를 예고하면서 해외에서 KF-21을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거론하거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도 성능개량을 전제로 한 확장성이 있어 중장기 전력 전환의 대안으로 부상한다는 평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사우디 아라비아 공군사령관 일행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KF-21 기동 시범을 참관하고 개발 현황·성능·전력화 일정 브리핑과 함께 KF-21 기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중장기 로드맵을 공유받았다. 인도네시아 항공 전문 매체 에어스페이스리뷰는 이번 방한이 사우디 공군의 전력 현대화 과정에서 KF-21을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UAE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150억달러 규모 한·UAE 방산 협력 MOU 이후 KF-21 관련 협력·참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동남아에서도 도입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군사·방산 전문 매체 아미레코그니션은 지난달 6일 필리핀이 KF-21의 오는 2027~2029년 인도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필리핀 공군의 중장기 전력 증강 계획인 '호라이즌 3' 일정과 맞물린다. 필리핀은 지난해 6월 약 7억달러 규모로 FA-50PH 12대를 추가 도입해 올해 말부터 인도 받을 예정이며, 지난 2014년부터 FA-50PH를 운용하며 성과 기반 군수지원(PBL)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말레이시아밀리터리파워는 말레이시아 노후 전투기 퇴역이 임박했지만 과도기 전력 도입이 지연되자 KAI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지난달 11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는 '2055 역량 개발 계획'에 따라 다목적 전투기(MRCA) 약 36대를 추진 중이다.

동유럽과 남미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6월 공군 고위 인사가 KAI 본사를 방문해 KF-21 시제기에 탑승했으며, 페루는 FA-50과 KF-21을 결합한 혼합 도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KF-21이 단계적 성능개량(PIP)을 전제로 블록-1(공대공)에서 공대지·공대함 능력 확장과 유무인 복합체계(MUM-T) 연계까지 발전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체 도입과 함께 운용·정비·교육훈련을 묶은 패키지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방위사업청은 KF-21 체계개발을 올해 상반기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 인도와 9월 초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1은 오는 2027년까지 20대, 2028년까지 추가 20대 등 총 40대 도입이 계획돼 있으며, 현재까지 1600여 회 비행시험과 1만3000여 개 시험조건을 무사고로 통과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특정 국가와의 협력은 해당 지역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공동개발은 공동 마케팅과 향후 성능개량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중기부, 지자체 첫 '재직자 목돈' 지원

중진공·속초시와 업무협약 체결
3년간 중기 근로자 총 1200명 대상
내일채움공제·우대저축공제 지원

강원도 속초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들의 목돈 마련을 적극 돕는다. 속초에 소재한 중소기업 근로자 총 1200명(연간 400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와 우대저축공제 가입을 3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속초시에 있는 과자의 성에서 속초시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간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대저축공제는 4월부터 가입을 지원한다. 속초시 지역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3년간 총 900명(연간 300명)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속초시가 2만원, 중진공이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4만원의 저축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대저축공제의 중소기업 납입금을 속초시가 지원함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일채움공제는 하반기부터 3년간 총 300명(연간 100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1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이 12만원, 속초시가 12만원을 지원해 3년 후 총 1270만원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재직자 납입금(360만원)의 3.5배 수준이다.

행사에 참여해 사전청약을 한 과자의 성 조성조 대표는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큰 고민은 좋은 제품과 생산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인재유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이번 협업형 공제사업 참여를 계기로 인재 확보가 돼 판로 확장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속초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우대저축공제를 지원함으로써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예산 수립의 주체가 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정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해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호 동반성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역 경제의 주역인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실전형 인재'로 정책 속도 높인다

중기부, 과장급 승진·전보인사 단행
성과 중심·실전형 인재 요직에 발탁
韓 "더욱 혁신적인 조직으로 만들 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본부 과장의 40% 이상을 80년대생 과장으로 배치하고, 주요 보직에는 30대 과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한성숙표 인사'를 단행했다.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실전형 인재 전진 배치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실행하기위한 한 장관의 실용주의 인사 철학을 적극 반영하면서다.

중기부는 2일자로 과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이번 인사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한 김승택·김혜남 서기관은 모두 30대 중반(89년생)으로 그동안의 업무 성과가 입증돼 각각 혁신행정담당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을 맡게 됐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운영지원과장(김민지·85년생), 정보화담당관(이호중·86년생)에 80년대 중반생들을 파격 발탁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관행을 깨고 오로지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생긴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실 인력도 추가로 보강했다.

/김승호 기자

인태연 "현장에 와야, 진짜 일 시작"

〈소진공 이사장〉

30일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방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전통시장에서 첫 취임 행보를 시작했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태연 신임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중앙시장활성화구역에 방문해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태연 이사장은 상인회 관계자 및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기간 경기침체와 임대료·원가 부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켜오신 상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와야 비로소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상인 여러분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이날 시장에서 건어물점, 어묵점, 떡집, 과일가게 등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도 진행했다. 구매한 물품은 지역 보육시설에 기부, 나눔 문화 확산에도 나섰다.

이에 앞서 인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소진공 대전본부에서 진행한 취임사에서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성장 경로 구축 ▲현장에 녹아드는 정책과 효과 극대화 ▲AI·디지털 교육,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중앙시장에서 상인과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다. /소진공

/김승호 기자

한솔제지

차세대 감열지 개발

한솔제지가 금호석유화학과 손잡고 차세대 감열지를 개발한다.

한솔제지는 대전에 있는 회사 중앙연구소에서 차세대 감열지 제품 개발을 위해 금호석유화학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자 보유한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세대 감열지용 핵심 소재와 제품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추진한다.

감열지(Thermal Paper)는 열을 가해 글자나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는 종이로 영수증, 바코드 라벨, 택배 송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금호석화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감열 성능을 향상시킨 고성능 감열지용 핵심 소재를 개발을 담당한다. 한솔제지는 해당 소재를 적용한 감열지 제품의 설계·양산·품질 검증 및 시장 확대를 맡는다. 이를 통해 양사는 감열지의 품질 및 안정성을 고도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한솔제지는 감열지 시장에서 글로벌 톱 티어(Top-Tier) 수준의 플레이어로서 차세대 감열지용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면서 "감열지용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고객가치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